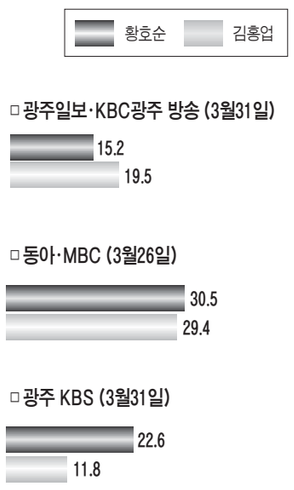
D-2 격전지를 가다

황-김 빅뱅 … 이 '무안 토박이론' 가세

〈호순〉 〈홍업〉 〈윤석〉

■무안·신안 여론조사 결과 (단위:%)



무안·신안

황호순 "부동층 대부분 민주당 지지" 승리 낙관
김홍업, 'DJ 바람' 지난주부터 확실한 승기 잡아
이윤석, 무안 절대적인 지지 막판 대역전극 노려

18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안·신안 지역구 판세는 아직까지 안개속이다.

통합민주당의 황호순 후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차남 무소속 김홍업 후보, '무안 토박이론'을 내세운 무소속 이윤석 후보 등이 나서 '3자 혼전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40%에 육박하는 부동층은 그 어느 누구도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 당일에도 막판까지 승자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민주당 황호순 후보 측은 현재의 판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인 우세승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황 후보가 2위 후보와 최소한 5%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데다 부동층 대부분이 기존 민주당 지지자라는 점에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한 승리가 예견된다는 것이다. 또 DJ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동교동 가신들의 지원 유세는 오히려 지역에서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무소속 김홍업 후보 측은 이미 전세가 역전됐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의 유세를 통해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 및 출마 배경이 바닥 표심에 전달된데다 이희호 여사의 잇따른 지원 유세 등으로 'DJ 바람'이 확산되면서 지난주 중반부터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후보 측은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황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나 하락세를 보인 반면 김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나타낸데다 표심을 드러내지 않은 부동층이 사실상 DJ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격차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소속의 이윤석 후보는 인구수가 많은 무안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막판 대역전극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의 결집만 이뤄지면 극적인 승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신안에서도 꾸준하게 15%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후보 측을 고무시키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의 고기원 후보와 무소속의 강성현 후보, 평화통일가정당의 서성종 후보는 차별화된 공약 등을 바탕으로 '진정한 일꾼'임을 강조하며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안·신안

후보	1번 황호순 통합민주당	2번 고기원 한나라당	6번 서성종 평화통일가정당	7번 강성현 무소속	8번 김홍업 무소속	9번 이윤석 무소속
나이	59세	56세	43세	42세	57세	48세
학력	경기대 행정학과 졸업	대전대 경영대학원 졸업	미 캘리포니아 유니온대 신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경남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	전 민주당 중앙당 사무부총장	전 육군 제3사단장	평화통일가정당 총재상임특보	제17대 대선 민주당 대통령 예비 후보	전 아·태 평화재단 부이사장	7대 전남도의회 의장
직업	정당인	대전대 교수	정당인	정치인	국회의원	대학 강사
재산	19억1천800만원	21억2천100만원	4억7천100만원	4천500만원	37억4천700만원	14억4천400만원
병역	소집면제 (장기대기)	육군 소장	육군 병장	공군 대위	육군 중위	육군 병장
공약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정 -무안시 승격 -압해~압태간(새천년대교) 건설	-무안기업도시 관련 SOC의 확충, 기업 유치 전략 -천일염 기능성제품 개발 및 산업규모확대 -압해대교 조속한 개통	-일흥조선 외 우수한 조선산업체 유치 -헬기기지국 유치 -국제적 영어도시로 육성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인재 육성특별법' 입기내 제정 -2008년 말까지 (가칭) 범 무안도시발전위원회 구성 -연륙계획 조기 추진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에 연도교 지속적으로 건설 -농어가소득 안정망 구축 -노인전문 병원 설치	-무안시 승격 -신안군 조선타운 활성화 -신안지역 국도2호선(압해~압태)연 도교 건설

▲쟁점 및 현안=무안·신안의 최대 현안 이슈로는 무안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이 꼽히고 있다.

민주당 황호순 후보는 무안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으로 외국인 투자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주변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전남 서부권 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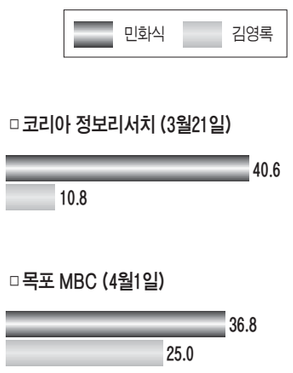
무소속 김홍업 후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무안기업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도시 내의 재산권 행사의 불리함을 해소, 기업이나 지역민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면서 무안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기초부터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

무소속 이윤석 후보는 무안기업도시의 실행과정부터 재점검하는 것은 물론 포괄적인 지원 대책 등을 마련, 기업이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민 우세 속 '돈 살포' 수사에 판세 흔들

〈화식〉

■해남·완도·진도 여론조사 결과(단위:%)



해남·완도·진도

민화식, 돌발 변수에 '당혹'… 막판 지지표 단속 나서
김영록, '젊은 인물론' 부각 캐스팅 보트 진도에 총력

민주당의 텃밭에서 현역의원 2명을 물리치고 공천을 따낸 해남 출신 민화식(68) 후보의 우세 속에 완도출신 무소속 김영록(53) 후보가 뒤를 쫓는 형국이다.

하지만 선거 막판에 민 후보의 '돈 살포설'이라는 복병이 출현하면서 큰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커졌다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선관위의 고발로 이미 광주지검 해남지청의 수사가 진행중이며, 지역 시민단체들도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후보측도 이같은 '돌발 변수'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민 후보 캠프는 그동안의 유리한 지지율 수성을 위해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지지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민주당 후보라는 절대적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세론을 확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모두 7번의 선거 출마로 다져진 탄탄한 조직기반과 임명직과 선출직 군수를 지내면서 형성된 개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막판 지지율 격차를 벌여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 후보측 "최근의 돈 살포설은 사실무근이다. 선거 막판 네거티브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면서 "농민을 대표하는 민 후보에 대한 지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김 후보측은 '젊은 인물론'을 부각시키며 지역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 불거진 민 후보의 '돈 살포설'도 최고의 호재다.

김 후보측은 일단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진도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또 해남지역에서는 민 후보의 돈 살포를 집중 부각하며 막판 표심 뒤집기에 올인하고 있다.

김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 막판 들어 지역의 민심이 젊은 인물론에 쏠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일이 촉박하긴 하지만 이같은 추세대로 라면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밖에 설철호 한나라당 후보와 이민호 평화통일가정당 후보도 지역발전 적임자론으로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해남·완도·진도

후보	1번 민화식 통합민주당	2번 설철호 한나라당	6번 이민호 평화통일가정당	7번 김영록 무소속
나이	68세	57세	41세	53세
학력	건국대 대학원 행정 석사	홍익대 경제학과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 대학원 행정 석사
경력	곡성, 강진, 화순, 해남 군수	제 17대 대선 한나라당 전남 홍보대책 위원장, 호남교육신문사 사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남군 회장, 남북통일 운동 국민연합 중앙위원	완도 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업	농업	정당인	정당인	정치인
재산	8억6천672만원	1억5천만원	1억916만4천원	5억6천474만7천원
병역	육군 일병(대학생 귀휴)	육군 병장	육군 상병	육군 병장
공약	-해남·완도·진도 동북아 중추 거점 기지화 -초고령 사회 농어민 복지, 교육, 환경 정책 강화 -서남해안 관광벨트 적극 추진	-서남해안 관광 레저 거점 도시 육성 -한국형 베네치아 다도해 해양관광권 조성 -FTA 극복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가족행복 특별법 제정 -관광레저도시 일환 대흥사 관광지 활성화 -노인사회 참여 및 일자리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및 범위 확대 -농림예산 비중 확대 -농어촌 교육 개선을 위한 특례지원 및 공립형 기숙학교 육성

▲쟁점 및 현안=해남·완도·진도는 기존의 강진·완도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완도가 해남·진도에 합쳐짐에 따라 이번 총선의 주요 쟁점도 새롭게 편성된 선거구 3곳의 균형적 발전이다.

각 후보 진영도 이같은 표심을 간파하고 이들 3개 지역의 공동 발전을 가장 큰 쟁점으로 보고, 공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화식 후보측은 해남·완도·진도를 서남해안 관광벨트로 묶고, 동북아 중추 거점 기지화 등 '지역 개발론'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유권자들을 설득 중이다. 김영록 후보측은 해남, 완도, 진도 지역이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농어촌 개발 정책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정치적 관록을 앞세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지, 아니면 젊은 인물론을 앞세운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지도 막판 정치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다.